

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-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

수 신 : 각 언론사 사회부·국제부

발 신 :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-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
담당: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02-3675-7740 / jirimkim@kpil.org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림세영 간사 070-5176-8299 / hanlim@minbyun.or.kr

제 목 : [보도협조]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
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/ 2025. 3. 21.(금) 9:30, 국가인권위원회 앞

전송일자 : 2025. 3. 19.(수)

전송매수 : 총 3매

기자회견

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

- 일시 : 3월 21일 (금) 오전 9:30
- 장소 : 국가인권위원회 앞
- 순서
 - 인종차별철폐 협약의 의미와 시민사회 역할
 - 인권위 파행 경과와 규탄
 - 한국 인종차별 실태 (이주노동자, 이주여성)
 - 한국 인종차별 실태 (난민, 이주아동)
 - 성명문 낭독

주최 -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-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

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
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

일시&장소: 2025년 3월 21일(금) 오전 9시 30분, 국가인권위원회 앞

1. 취지와 목적

- 오는 2025년 4월 29일부터 30일, 대한민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(CERD)의 가입국으로서 제도적·실질적 인종차별 실태 및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20-22차 정기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. 이번 심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'인권위')의 독립보고서를 바탕으로, 협약 이행 실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평가와 권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- 인권위는 지난 2025년 2월 24일, 3월 4일, 7일, 17일 총 4차례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차 심의 전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보고서 제출을 두고 논의해 왔습니다. 그러나 강정혜, 김용원, 한석훈 등 일부 인권위원들은 독립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수정·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인권위는 이를 반영해 독립보고서의 원안을 각 주요 주제별로 검열하며 주요 권고 내용을 전면 삭제·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담은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,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권고,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,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 핵심 내용이 삭제·축소되었으며, 최종 독립보고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수차례 해온 권고와 의견표명에 상반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보다도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
- 또한,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'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,' '내국인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,' '인종차별금지 법제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,' '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'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주장은 인종차별적 집회에서 흔히 등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,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
-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-22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 사무국(총 10개 전국이주인권단체)에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위한 인권위 독립보고서 의결의 건이 5회 재상정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[3월 21일\(금\) 오전 9시 30분, 인권위 앞에서](#)

“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을 규탄한다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,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을 낭독 및 전달할 예정입니다.
참여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실태를 은폐하고 인종차별철폐 법제화를 저지하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고, 전원위원회 논의에 있어 인권위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

2. 개요

- **제목:**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
- **일시&장소:** 2025년 3월 21일(금) 오전 9시 30분 / 국가인권위원회 앞
- **주최:**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-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
- **프로그램:**

*사회: 김지림 변호사 (공익인권법재단 공감)

- **발언1:** 인종차별철폐 협약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 / 이완 공동대표 (아시아인권문화연대)
- **발언2:** 인권위 파행 경과와 규탄 / 한림세영 활동가 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)
- **발언3:** 한국 인종차별 실태 - 이주노동자, 이주여성 / 허오영숙 대표 (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)
- **발언4:** 한국 인종차별 실태 - 난민, 이주아동 / 김사강 연구위원 (이주와인권연구소)
-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낭독 및 전달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

2025년 3월 19일(수)

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**20-22**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